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효과분석*

윤 준 현¹⁾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둘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로장벽은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 소재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2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SPSS 및 AMOS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낮추게 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끼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학생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직업에 대해 흥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진로준비행동을 덜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에게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항상 방해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녀에 따라 진로장벽요인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 본 논문은 윤준현의 석사학위논문(2017)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한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kk4369@naver.com)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choi0122@hnu.kr)

I. 서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그 과정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가 결국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생들에게도 불명확한 진로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이며,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진로결정문제가 중요한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명숙, 2002).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및 교육적·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이다(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2007).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전공과 진로 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 전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김선중, 2005). 이에 대학에서는 진로상담을 시행하는 등 대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로에 대한 상담은 취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청년취업이 점차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학생들이 겪는 진로스트레스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이상

준, 2020),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학업과 취업 및 진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졸업이 가까워져도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어하며(국민일보, 2019. 08. 16) 취업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진로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천적인 방안의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진로 특성과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탐색과 준비를 하는 것과 관련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써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강윤심, 2010; 강정은, 2008; 강현희, 2015; 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김지원, 2018; 유수복, 2013)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이전까지 진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인지나 정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실제적 진로준비행동 요인이 인지적 요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김계현, 1997),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Krumboltz, 1996) 국내에서도 행동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박신영, 이동형, 2013).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으로 보면서 잠재적인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인 직업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거나(최춘희, 2011),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김선중, 2005), 또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김봉환, 김계현 1997)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준비’와 ‘행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인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결정을 실천하려는 구체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진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방해요인으로 진로장벽이 있다. 진로장벽은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말한다(손은령, 2001). 즉 취업, 진학을 위한 준비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진로에 대한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결정은 단순히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과 같은 사회맥락변인의 영향을 받는다(양난미, 2006). 이와 관련하여, 손은령(2001)은 진로상담가는 진로연구자들이 진로준비행동 중 지각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진로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개인 심리적 변인의 역할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진로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인 진로준비행동은 사회적 제약과 환경의 영향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진로장벽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의 진로 계획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진로장벽이 진로에 대한 탐색행동과 준비행동을 낮춘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강윤심, 2010; 강현희, 2015; 김선중, 2005; 유미정, 2008). 강윤심(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흥미부족, 미래불안은 부정적영향을 끼치며 진로장벽을 많이 느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미정(2008)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진로장벽을 느낄수록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성격문제, 정보부족, 흥미부족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갈등과 신체열등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중, 2005).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진

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항상 방해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장벽의 지각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 변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진로장벽 안에서 그 둘을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강현희, 2015).

이와 관련하여 진로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적·외적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지만 반대로 자신감이 강하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진로장벽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도움이 될 수 있다(Taylor, Betz 198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과업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수행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성공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해결방안을 인지적으로 시연하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86). 또한, 자신의 미래직업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신감이 실제 행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김민준, 2004).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서도 자

아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로장벽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지지원이 되어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러 연구(고태용, 2008; 김종운, 김현희, 2016; 유미정, 2008; 유수복, 2013;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유수복, 2013).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과제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높은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낮추게 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진로준비행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한 실천 단계에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외에 정의적 측면에서는 성숙한 진로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성숙된 진로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진로성숙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의적 특성의 동일한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중 인지적인 면인 ‘능력’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고, 정의적인 면인 ‘태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개념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Crites, 1978; 이상희, 2005에서 재인용). 진로태도성숙 또한 진로발달의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결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간에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김봉환 1997; 김영태, 2005; 문선아, 2000). 또한,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준비성과 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숙경, 2013). 그러나 개인의 진로태도가 아무리 성숙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로발달의 각 단계의 과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강란해, 2011).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와 진로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하여 개인의 성별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자기명확성 부족, 신체적 열등감, 미래불안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유수복, 2013). 또한, 진로장벽과 유사한 개념인 진로스트레스도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201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손은령, 손진희, 2005)

가 있는 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서유진, 2007). 또한, 진로성숙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문선아, 2000). 또 다른 연구(신혜진, 2016)에서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고려하여 ‘진로행동적응집단’, ‘진로행동미분화집단’, ‘진로장애극복집단’, ‘진로행동혼돈집단’, ‘진로행동고뇌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높은 ‘진로행동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학생의 진로발달은 성차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이현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실제적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장벽 특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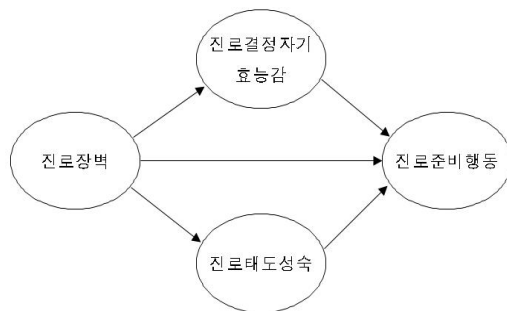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둘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권에 소재한 두 곳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이다. 연구자가 각 대학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설문방법 소개, 작성 시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전체 300부 중 2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설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26부를 제외한 총 224부를 최종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학생이 144명(64.3%)이며 여학생이 80명(35.7%)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2명(4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학년 52명(23.2%), 2학년 47명(21.0%), 3학년 23명(10.3%) 순이었다. 또한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86명(38.4%), 자연·공학계열 132명(58.9%), 예·체능계열 6명(2.7%) 순이었다.

2. 측정도구

진로장벽 척도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9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봉환(1997)이 연구 개발한 척도를 고태용(2008)이 수정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색행동과 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4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본다.

표 1. 진로장벽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기명확성 부족	7	1, 10, 11, 20, 21, 31, 40	.806
흥미부족	4	5, 15, 25, 35	.783
미래불안	6	6, 16, 26, 30, 36, 44	.798
대인관계의 어려움	5	2, 12, 22*, 32, 41	.850
경제적 어려움	5	7, 17, 27, 37, 45	.74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5	3, 13, 23, 33, 42	.837
직업정보의 부족	5	4, 14*, 24, 34, 43	.760
나이문제	4	9, 19, 29, 39	.833
신체적 열등감	4	8, 18, 28, 38	.822

* 역채점 문항

표 2.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탐색행동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858
준비행동	5	13, 14, 15, 16, 17	.8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인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Betz, Klein & Taylor(1996)가 25개 문항으로 축소 개정하고 이은경(2001)이 변안한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사용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것으로 본다.

표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목표선택	11	1, 2, 3, 6, 8, 9, 11, 14, 18, 20, 22	.853
직업정보수집	6	7, 15, 19, 21, 23, 24	.716
문제해결	3	13, 17, 25	.738
미래계획	5	4, 5, 10, 12, 16	.659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 (1997)의 진로태도성숙도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를 사용하였다. 총 47개 문항으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2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한 것으로 본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와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경로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에 사용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장벽의 각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ayes의 SPSS Process Macro v3.0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참조). 진로장벽변인은 대부분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진로준비행동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대부분의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간에 정적상관이 있음을

표 4.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결정성	10	1, 2*, 3, 4*, 5*, 6*, 7, 8, 9*, 10*	.884
목적성	8	11*, 12*, 13, 14*, 15*, 16*, 17*, 18*	.791
확신성	10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50
준비성	10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824
독립성	9	39*, 40*, 41*, 42, 43*, 44, 45, 46, 47*	.861

* 역채점 문항

알 수 있다.

1.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연구경로별 총효과 및 직·간접 효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461(p<.001)$ 의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태도성숙에는 $-.784(p<.001)$ 의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383(p<.001)$ 의 정적효과,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487(p<.001)$ 의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는 낮아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학생은 진로준비행동을

잘 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57(p<.001)$ 로 정적효과를 가지고 간접효과는 $.558(p<.001)$ 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여도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을 덜 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들(강현희, 2015; 김선중, 2005; 유미정, 2008)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매개 경로별 Sobel 검증 결과

매개 경로별 Sobel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z 값은 $-4.611(p<.001)$ 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z 값도 $-4.905(p<.0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 6. 연구경로별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

구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61^{***}$ ($-.461^{***}, .000$)		
진로태도성숙	$-.784^{***}$ ($-.784^{***}, .000$)		
진로준비행동	$-.101$ ($.457^{***}, .558^{***}$)	$.383^{***}$ ($.383^{***}, .000$)	$.487^{***}$ ($.487^{***}, .000$)

$***p<.001$

표 7. 매개경로별 Sobel검증

구분			β (표준화계수)	z
←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176	-4.611***
←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	진로장벽	-.381	-4.905***

*** $p < .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각 하위변인들이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다. 진로
장벽의 하위변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
보의 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beta = -.222, p < .05$; $\beta = -.241, p < .05$), 중요
한 타인과의 갈등, 나이문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beta = .353, p < .001$; $\beta = .284, 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들이 갖는 설명력은

표 8. 진로장벽 요인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t	
진로 준비 행동	절편	57.589	2.975		19.361***	.000
	자기명확성 부족	-.216	.091	-.222	-2.381*	.018
	흥미부족	-.139	.085	-.151	-1.633	.104
	미래불안	-.035	.077	-.038	-.453	.651
	대인관계 어려움	-.105	.059	-.129	-1.766	.079
	경제적 어려움	.128	.082	.142	1.553	.122
	중요한 타인과의갈등	.304	.081	.353	3.731***	.000
	직업정보부족	-.245	.102	-.241	-2.408*	.017
	나이문제	.224	.082	.284	2.736**	.007
	신체적 열등감	-.097	.081	-.117	-1.208	.228
$R^2(\text{adj.}R^2) = .255(.223), F=8.128***$						

* $p < .05$ ** $p < .01$ *** $p < .001$

25.5%($R^2=.255$)로 나타났다. 즉 자기명확성이 떨어지고 직업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적을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겪거나 나이가 많다고 인식할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별차이 검증

남자대학생의 진로장벽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자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각 하위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진로장벽의 하위변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0, p < .01$; $\beta = -.456, p < .01$), 경제적 어려움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2, p < .01$; $\beta = .293, p < .05$). 또한 하위요인들이 갖는 설명력은 26.3%($R^2=.263$)로 나타났다. 즉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명확성이 떨어지고 직업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적을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겪거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할 경우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자 대학생의 진로장벽의 각 하위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 남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요인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t	
진로 준비 행동	절편	57.872	4.063		14.243***	.000
	자기명확성 부족	-.297	.110	-.300	-2.702**	.008
	흥미부족	.168	.112	.176	1.496	.137
	미래불안	-.154	.111	-.155	-1.387	.168
	대인관계 어려움	.022	.087	.026	.253	.800
	경제적 어려움	.275	.103	.312	2.686**	.008
	중요한 타인과의갈등	.254	.120	.293	2.117*	.036
	직업정보부족	-.468	.136	-.456	-3.438**	.001
	나이문제	.126	.104	.162	1.204	.231
	신체적 열등감	-.092	.097	-.115	-.949	.344
$R^2(\text{adj.}R^2) = .263(.213), F=5.301***$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요인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진로 준비 행동	절편	55.393	4.048		13.684***	.000
	자기명확성 부족	.057	.147	.061	.390	.698
	흥미부족	-.586	.133	-.643	-4.397***	.000
	미래불안	-.059	.096	-.069	-.611	.543
	대인관계 어려움	-.196	.077	-.261	-2.551*	.013
	경제적 어려움	-.053	.128	-.054	-.415	.68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340	.092	.395	3.681***	.000
	직업정보부족	.127	.136	.124	.932	.354
	나이문제	.454	.122	.503	3.712***	.000
	신체적 열등감	-.227	.131	-.238	-1.729	.088
R ² (adj.R ²) = .553(.495), F=9.608***						

* $p < .05$ ** $p < .01$ *** $p < .001$

표 10과 같다. 진로장벽의 하위변인 중 대인관계 어려움, 흥미부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61, p < .05$; $\beta = -.643, p < .0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나이문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95, p < .001$; $\beta = .503, p < .001$). 또한 하위요인들이 갖는 설명력은 55.3%로 나타났다. 즉 여자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에 대한 흥미가 부족할 때 진로준비행동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나 나이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건부매개효과 검증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이 미치는 영향

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Hayes의 SPSS Process Macro v3.0 Model 15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표준화 값을 활용하였다(표 11 참조).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심이 있다(Hayes, 2013).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였을 때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태도성숙을 매개로 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매개변수인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진로장벽의 유의성이 확인되었고($\beta = .60, p < .001$), 다음 단계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장벽($\beta = 1.24, p < .001$), 진로태도성숙($\beta = 1.96, p < .001$)의 유의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beta = -.57, p < .05$),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

표 11. 성별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 결과

Variable		β	SE	t	p	LL 95% CI	UL 95% CI
진로장벽→진로태도성숙		-.60	.03	-18.60	.00	-.67	-.54
진로장벽→진로준비행동		1.24	.34	3.63	.00	.56	1.91
진로태도성숙→진로준비행동		1.96	.44	4.41	.00	1.09	2.84
진로장벽×성별→진로준비행동		-.57	.24	-2.35	.01	-1.04	-.09
진로태도성숙×성별→진로준비행동		-.70	.30	-2.30	.02	-1.31	-.10

종속변수	매개변수	독립변수	변수수준	β	Boot SE	95% 신뢰구간	
						LL 95% CI	UL 95% CI
진로준비 행동	진로태도 성숙	진로장벽	남자	-.76	.14	-1.04	-.46
			여자	-.33	.17	-.66	.01

비행동간($\beta = -.70$, $p < .05$)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었다.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남학생은 하한값 -1.04과 상한값 -.46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없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은 하한값 -.66와 상한값 .01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표준화 계수가 -.76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변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24명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SPSS 및 AMOS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낮추게 된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열심히 한다는 연구결과(고태용, 2008; 김종운, 김현희, 2016; 유미정, 2008; 유수복, 2013; 주영주 외, 2015)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낸 최숙현(2008)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대학생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많다고 느낄수록 인지적인 측면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정의적인 측면의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

지기 힘들며,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진로를 실천해나가도록 행동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진로장벽을 많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진로태도성숙 또한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나 높은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인다는 결과는 진로장벽이 실제적인 준비행동을 낮춘다는 선행연구결과(강현희, 2015; 김선중, 2005; 유미정, 2008) 및 자신의 진로선택, 포부, 동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진로장벽을 많이 겪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진로장벽 요인의 유무 및 차이를 확인하거나 지각된 진로장벽과 다른 변인관계를 확인할 때 주로 총점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개인에 따라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촉매제도 될 수 있으므로 각 요인들이 진로결정 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강정은, 2008),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에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총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박숙경, 2013)에 주목하여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명확성이 떨어지고 직업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적을 경우에는 진로준비행동을 적게 하였으나, 부모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 갈등을 겪거나,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인식할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개인의 성별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유수복,

2013; 이상희, 2012; 손은령, 손진희, 2005; 서유진, 2007; 문선아, 2000)를 토대로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대학생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자대학생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직업에 대해 흥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진로준비행동을 덜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진로장벽의 요인 중 남자대학생은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여자대학생은 나이가 많다고 느낄 때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공통으로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있다고 느낄 때 진로준비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항상 방해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변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관련된 변인이 실제적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녀 대학생 공통적으로는 부모님, 친구들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진로에 반대 또는 기대가 크다고 예상될 경우에도 실제적 진로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반대한다면 아마 대학생들은 그들로부터 더 이상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겠

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요구를 나름대로 잘 조절해가면서 진로준비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남학생들은 진로의 정의적 측면인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 진로결정, 확신, 준비성, 독립성을 잘 갖추지 못하면 실제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는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상담 과정에서 남녀에 따라 다른 진로장벽요인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남학생의 경우 진로직업탐색과 미래비전확립,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진로동기향상, 진로흥미강화 및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하는 진로장벽을 느끼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에 대한 태도가 성숙하다면

진로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된 활동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로발달단계를 바탕으로 자아탐색, 자아성장, 자아확립, 자아실현의 과정을 포함하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각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나 교수학습센터, 취업 관련 부서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향후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세분화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며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에 대한 집단상담과 더불어 1:1 진로코칭을 통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진로를 파악하도록 하고, 관심 진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학업 문제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주면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도의 효과가 남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남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수준을 측정하여 진로 미결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진로를 결정하였지만 추진력 있게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남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별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평등 문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처럼 남학생들이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때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취업의 어려움이나 경력단절의 문제 등으로 인해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 대학생들이 진로장벽이라고 느끼는 요인 중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진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인식에 대한 성차와 관련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차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의 하나로 ‘성 역할 정체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이 여성성을 많이 가진

경우나 여성이 남성성을 많이 가진 경우 또는 양성성이 강할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이나 개인내적가치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진로장벽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장벽은 어느 한 순간에 획득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달되어온 것이기 때문에(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남녀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도 청소년 시기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기 이전 청소년 시기부터 진로장벽의 인식변화과정을 종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었다는 가정하에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방향에 따라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좀 더 민감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 (201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41-953.
- 강윤심 (2010).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고태용 (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민일보 (2019.08.16.). 4년제 대학생 절반 “진로 아직 결정 못 해”. 국민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5&aid=0001229765>에서 2020년 6월 24일에 인출.
-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 김민순 (2004).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5).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운, 김현희 (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741-766.
- 김지원 (2018). *대학생의 진로장벽 및 사회적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진로만족의 구조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아 (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경 (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이동형 (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32(1), 23-38.
-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혜진 (2016).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진로동기의 영향력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49-373.
- 양난미 (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미정 (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의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2). 산업재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2020).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1), 1-15.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9(3), 1085-1099.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 최숙현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춘희 (2011). 실업자의 성격특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71-91.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rites, J. O. (1978). The maturity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90,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Krumboltz, J. D.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4), 345-36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1 차원고접수 : 2020. 04. 24.
수정원고접수 : 2020. 06. 13.
최종게재결정 : 2020. 06. 17.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Yoon, JunHyun

Choi, Jiyoung

Dep.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s set in this study to achieve this goal are as follows. First, d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have a mediating effect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each sub-factor of the career barrier? Thir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college students at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Daejeon, Korea and 224 data were collected and verified by SPSS and AMO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udents who perceive career barriers as high have a low degree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maturity, and these factors lower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students with hi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found to be good at career prepar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recogn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e mediati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differed by gender. When male students feel lack of self-determination and a lack of job information, female college studen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 or a lack of interest in the job, they engage in less career preparat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grea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male students. This means that career barriers do not always act as a hindrance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order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uring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reer barrier factors individually for male and female.

Keyword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